

##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EMT-Paramedic Student's Attitude to the Disabled

최길순\*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1990년 24만 명이던 등록장애인이 2009년 243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성별 분포에서는 남자가 1,425,903명(58.7%), 여자가 1,003,662명(41.3%)으로 남자의 장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sup>1)</sup>. 이들 중 각종 질환 및 사고 등에 의한 중도장애의 비율은 89%로 장애인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특히나 외부 활동이 많은 대학생 시절에는 사고에 의한 중도장애와 우울증 등의 정서장애가 많음이 마스크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은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상당히 높다<sup>2)</sup>.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장애인을 사회적 취약 계층 및 소외계층으로 전락시키고, 분리와 단절을 조장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있어서 완전한 사회통합이 장애인과 일반인의 구분 없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 없이는 참다운 의미로서 장애인의 사회진출이 불가능할 것이다<sup>3)</sup>. 따라서 장애인의 유형·정도 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합리적 제도 및 재원확보가 필요하다<sup>4)</sup>. 그러나 매년 장애인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장애인관련 법과 제도 등 장애인복지 정책의 부재와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과 차별 행동은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생활적응에 심각한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sup>4-5)</sup>.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보면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 온 것은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 생활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장애의 원인에 대한 비과학적, 미신적 선입견이라고 볼 수 있다<sup>2,6)</sup>.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장애를 포함한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 동강대학 응급구조과

투고일(2011. 7. 19), 심사완료일(2011. 8. 4), 게재확정일(2011. 8. 10)

교신처: 최길순(E-mail: cgs7771@naver.com)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선을 위한 접근 방법이 보다 구조화될수록, 한 가지 방법보다는 여러 방법을 결합하여 정보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을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다<sup>7-9)</sup>. 교육이란, 이 세상에서 봉사함으로 얻어지는 기쁨과 더욱 넓은 범위의 봉사로 말미암아 얻어질 보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으로<sup>10)</sup>, 어떤 연구 과정을 이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인교육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이어야 한다. 즉, 지·덕·체의 능력이 일생 동안에 걸쳐서 균형지고 원만하게 발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병원전과 병원 상황에서 장애인들을 접할 기회가 많은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고 조사된 결과를 근거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접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적용해 봄으로써 졸업 후 돌봄의 상황에서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G광역시 소재 3개 대학 응급구조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관련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하부영역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용어의 정의

### (1) 장애인(People with disability)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

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sup>11)</sup>. 즉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저하, 이상, 상실 또는 신체 일부의 훼손 등을 지칭하는 의학적 수준에서의 협의의 개념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손상 또는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의 특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4)</sup>.

### (2)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에 대한 태도란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신념, 감정 및 행동의도를 망라하는 개념으로서 비교적 지속적으로 특정인의 행동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감정적 요소가 포함된 성향을 말하며<sup>12)</sup>, 본 연구에서는 Siller<sup>13)</sup>가 개발한 DFS(Disability Factor Scale)를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3개 대학 응급구조과에 재학하고 있는 1·2·3학년 전체학생 399명 가운데 연구 참여에 동의한 348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총 10일간으로 각 대학 응급구조과 학과장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지도교수를 통하여 질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총 399부를 배부하였지만 351부(88.0%)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일관된 표기)하였거나 미기재 사항이 많은 3부를 제외한 348부(99.1%)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문항(학년, 성별, 연령, 중

교), 장애관련 특성 5문항(주위 장애인 여부, 장애 문제 관심 정도, 장애인에 대한 기사나 프로그램 관심정도, 장애인식 개선방법, 장애인 이미지), 장애인에 대한 태도 37문항을 포함한 총 4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는 Siller<sup>13)</sup>가 개발한 43문항 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DFS(Disability Factor Scale)를 이종남<sup>14)</sup>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거쳐 37문항 6개 영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전적으로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부정문항은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재부호화하였다. 신뢰도는 Siller의 연구에서는 .73에서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다.

###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12.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사용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관련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하부영역과의 관계는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먼저 일반적인 특성으로 전체 연구 대상자 348명 중 남학생이 228명(65.5%)으로 여학생 120명(34.5%)보다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학년별 구성에서는 1학년 137명(39.4%), 2학년 111명(31.9%), 3학년 100명(28.7%) 순이었다. 연령에서는 '20세 이하'인 경우가 213명(61.2%)으로 '21세 이상'의 135명(38.8%)보다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이들 중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203명(58.3%)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145명(41.7%) 보다 많았다. 다음으로 주위에 장애인이 있는지를 묻는 장애관련 특성 질문에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60명(74.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친척 36명(10.3%), 친구 27명(7.8%), 가족 25명(7.2%) 순이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14명(61.5%)으로 '있다'고 응답한 134명(38.5%)보다 많았고, TV나 라디오,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기사나 프로그램 방영 시 관심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91명(54.9%)으로 '있다'고 응답한 157명(45.1%)보다 많았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표 1>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하위영역에 대한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Crobach's $\alpha$
무조건적인 거부	1, 7, 13, 19, 25, 31, 36	7	.622
왜곡된 동일시	2, 8*, 14, 20, 26	5	.601
추론된 정서장애	3, 9, 15*, 21, 27, 32, 37	7	.699
손상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	4*, 10, 16, 22*, 28, 33	6	.566
친교의 거부	5*, 11, 17, 23, 29, 34	6	.735
접촉 시 긴장	6, 12, 18*, 24, 30, 35	6	.711
총 계		37	.854

\* 부정 문항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장애관련 특성

N: 348

변 수	구 분	N	%
학년	1학년	137	39.4
	2학년	111	31.9
	3학년	100	28.7
성별	남자	228	65.5
	여자	120	34.5
연령	20세 이하	213	61.2
	21세 이상	135	38.8
종교	있음	145	41.7
	없음	203	58.3
주위 장애유무	가족	25	7.2
	친척	36	10.3
	친구	27	7.8
	없음	260	74.7
장애문제 관심유무	있음	134	38.5
	없음	214	61.5
장애 프로그램 관심유무	있음	157	45.1
	없음	191	54.9
인식개선 방법	매스컴을 통한 홍보 및 교육	61	17.5
	성공적인 장애인 사례 부각	60	17.2
	정부차원에서의 장애인 지원	148	42.6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79	22.7
장애인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	149	42.8
	부정적 이미지	199	57.2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48명(42.5%)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79명(22.7%)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장애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불쌍하다’, ‘불편하다’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하는 경우가 199명(57.2%)으로 긍정적인 이미지인 ‘착하다’, ‘순수하다’라고 응답한 149명(42.8%)보다 많았다.

## 2.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표 3〉, 전체평균은 2.75점으로 중간 정도의 태도를 가

지고 있었다. 하부영역에서는 접촉 시 긴장의 평균이 2.90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추론된 정서장애 2.79점, 무조건적인 거부 2.78점, 친교의 거부 2.74점, 손상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 2.66점, 왜곡된 동일시가 2.65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F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1~4〉.

〈표 3〉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N: 348

구 분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접촉 시 긴장	1.03	4.31	2.90	.60
추론된 정서장애	1.45	3.82	2.79	.39
무조건적인 거부	1.45	4.39	2.78	.47
친교의 거부	.86	4.31	2.74	.45
손상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	.86	4.31	2.66	.48
왜곡된 동일시	1.00	4.20	2.65	.50
장애인에 대한 태도 평균	1.11	4.22	2.75	.48

(1)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F=.263, p=.769$ ), 하부영역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손상을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 $F=3.355, p=.036$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2)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인 태도( $t=-.262, p=.793$ )와 하부영역의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4-1〉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N: 348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F(p)
	M(SD)	M(SD)	M(SD)	
무조건적인 거부	2.74(.47)	2.79(.46)	2.81(.45)	.704(.496)
왜곡된 동일시	2.64(.46)	2.68(.53)	2.62(.54)	.471(.625)
추론된 정서장애	2.80(.37)	2.76(.40)	2.79(.41)	.218(.804)
손상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	2.58(.48)	2.73(.43)	2.79(.50)	3.355(.036)*
친교의 거부	2.72(.49)	2.76(.41)	2.75(.45)	.273(.761)
접촉 시 긴장	2.87(.61)	2.91(.58)	2.94(.60)	.395(.674)
태도 평균	2.73(.38)	2.77(.40)	2.78(.43)	.263(.769)

\*  $p<.05$

〈표 4-2〉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N: 348

구 분	남학생	여학생	t(p)
	M(SD)	M(SD)	
무조건적인 거부	2.79(.50)	2.76(.40)	.421(.674)
왜곡된 동일시	2.65(.54)	2.64(.43)	.097(.923)
추론된 정서장애	2.79(.42)	2.79(.33)	.032(.974)
손상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	2.64(.50)	2.71(.42)	.346(.171)
친교의 거부	2.73(.48)	2.76(.40)	-.579(.563)
접촉 시 긴장	2.90(.62)	2.90(.54)	.026(.980)
태도 평균	2.75(.42)	2.76(.35)	-.262(.793)

〈표 4-3〉 연령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N: 348

구 분	20세 이하	21세 이상	t(p)
	M(SD)	M(SD)	
무조건적인 거부	2.74(.46)	2.84(.46)	-2.102(.036)*
왜곡된 동일시	2.63(.48)	2.67(.54)	-.707(.480)
추론된 정서장애	2.76(.38)	2.83(.40)	-1.556(.121)
손상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	2.60(.47)	2.76(.47)	-3.255(.001)**
친교의 거부	2.70(.47)	2.79(.42)	-1.756(.080)
접촉 시 긴장	2.86(.59)	2.98(.61)	-1.908(.058)
태도 평균	2.72(.38)	2.81(.42)	-2.442(.015)*

\* p<.05, \*\* p<.01

〈표 4-4〉 종교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N: 348

구 분	종교 있음	종교 없음	t(p)
	M(SD)	M(SD)	
무조건적인 거부	2.74(.48)	2.80(.45)	-1.235(.217)
왜곡된 동일시	2.61(.50)	2.67(.51)	-1.048(.295)
추론된 정서장애	2.78(.39)	2.79(.39)	-.311(.756)
손상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	2.65(.48)	2.67(.47)	-.211(.833)
친교의 거부	2.73(.48)	2.74(.43)	-.195(.846)
접촉 시 긴장	2.84(.62)	2.95(.58)	-1.633(.104)
태도 평균	2.73(.43)	2.77(.38)	-1.181(.238)

(3) 연령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20세 이하’보다는 ‘21세 이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t=-2.442, p=.015$ ). 하부영역에서는 ‘21세 이상’에서 무조건적인 거부( $t=-2.102, p=.036$ )와 손상을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 $t=-3.255, p=.001$ )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4) 종교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종교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인 태도( $t=-1.181, p=.238$ )와 하부영역의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대상자의 장애관련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장애관련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F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1~5).

(1) 주위 장애인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주위 장애인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가족이나 친구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F=3.739, p=.011$ ). 하부영역에서도 가족이나 친구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서 추론된 정서장애( $F=5.211, p=.002$ )와 친교의 거부( $F=4.799, p=.003$ )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5-1〉 주위 장애인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N: 348

구 분	가족	친척	친구	없음	F(p)
	M(SD)	M(SD)	M(SD)	M(SD)	
무조건적인 거부	2.86(.56)	2.70(.44)	2.94(.53)	2.77(.45)	1.739(.159)
왜곡된 동일시	2.44(.41)	2.65(.54)	2.64(.46)	2.67(.51)	1.538(.204)
추론된 정서장애	2.99(.45)	2.67(.40)	2.95(.39)	2.77(.37)	5.211(.002)**
손상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	2.63(.42)	2.58(.51)	2.86(.46)	2.66(.48)	1.982(.116)
친교의 거부	2.83(.40)	2.57(.41)	2.98(.49)	2.73(.45)	4.799(.003)**
접촉 시 긴장	3.05(.63)	2.71(.52)	3.05(.74)	2.90(.58)	2.306(.077)
태도 평균	2.80(.39)	2.65(.41)	2.90(.46)	2.75(.39)	3.739(.011)*

\* p<.05, \*\* p<.01

〈표 5-2〉 장애 문제 관심정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N: 348

구 분	관심 있음	관심 없음	t(p)
	M(SD)	M(SD)	
무조건적인 거부	2.82(.50)	2.75(.44)	1.293(.197)
왜곡된 동일시	2.69(.54)	2.62(.48)	1.111(.267)
추론된 정서장애	2.82(.43)	2.77(.37)	1.000(.318)
손상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	2.73(.49)	2.62(.46)	2.242(.026)*
친교의 거부	2.82(.45)	2.69(.45)	2.603(.010)**
접촉 시 긴장	2.99(.63)	2.85(.57)	1.975(.049)*
태도 평균	2.81(.44)	2.72(.37)	2.262(.025)**

\* p<.05, \*\* p<.01

(2) 장애 문제 관심정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장애 문제 관심정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관심 없음’보다는 ‘관심 있음’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t=2.262, p=.025). 하부영역에서도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서 손상을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t=2.242, p=.026)과 친교의 거부(t=2.603, p=.010), 접촉 시 긴장(t=1.975, p=.049)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3) 장애프로그램 관심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장애프로그램 관심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인 태도(t=1.374, p=.170)와 하부영역의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인식개선 방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인식개선 방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와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가장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F=2.927, p=.034). 하부영역에서도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와 교육’에서 친교의 거부(F=3.219, p=.023)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5-3〉 장애프로그램 관심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N: 348

구 분	관심 있음	관심 없음	t(p)
	M(SD)	M(SD)	
무조건적인 거부	2.79(.49)	2.77(.45)	.457(.648)
왜곡된 동일시	2.66(.50)	2.64(.51)	.376(.707)
추론된 정서장애	2.80(.41)	2.77(.37)	.669(.504)
손상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	2.71(.46)	2.62(.49)	1.696(.091)
친교의 거부	2.77(.44)	2.71(.47)	1.203(.230)
접촉 시 긴장	2.95(.62)	2.86(.57)	1.444(.150)
태도 평균	2.78(.42)	2.73(.38)	1.374(.170)

〈표 5-4〉 인식개선 방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N: 348

구 분	매스컴을 홍보, 교육	성공사례 부각	정부 지원	사회지도층 솔선수범	F(p)
	M(SD)	M(SD)	M(SD)	M(SD)	
무조건적인 거부	2.89(.47)	2.79(.44)	2.76(.49)	2.73(.44)	1.549(.202)
왜곡된 동일시	2.67(.50)	2.73(.45)	2.61(.52)	2.64(.51)	.835(.475)
추론된 정서장애	2.88(.34)	2.79(.34)	2.79(.43)	2.72(.38)	1.900(.129)
손상 입지 않는 타 기능 제한	2.78(.49)	2.67(.41)	2.64(.51)	2.60(.44)	1.669(.173)
친교의 거부	2.89(.45)	2.69(.41)	2.74(.48)	2.66(.42)	3.219(.023)*
접촉 시 긴장	2.99(.53)	2.98(.48)	2.83(.64)	2.92(.64)	1.532(.206)
태도 평균	2.85(.36)	2.78(.32)	2.73(.44)	2.64(.39)	2.927(.034)*

\* p<.05

〈표 5-5〉 장애인 이미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N: 348

구 분	긍정적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t(P)
	M(SD)	M(SD)	
무조건적인 거부	2.85(.47)	2.72(.46)	2.500(.013)*
왜곡된 동일시	2.67(.49)	2.63(.51)	.751(.453)
추론된 정서장애	2.84(.41)	2.75(.38)	1.955(.051)
손상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	2.76(.45)	2.59(.48)	3.328(.001)**
친교의 거부	2.83(.43)	2.67(.46)	3.288(.001)**
접촉 시 긴장	2.94(.65)	2.88(.55)	.993(.322)
장애인에 대한 태도 평균	2.82(.42)	2.71(.38)	2.562(.011)*

\* p<.05, \*\* p<.01

(5) 장애인 이미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장애인 이미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장애

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t=2.562, p=.011). 하부영역에서는 무조건적인 거부(t=2.500, p=.013)와 손상을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t=3.328, p=.001), 친교의 거부(t=3.288, p=



.001)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 VI. 논 의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태도와 인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먼저 장애인 관련 특성으로 친척이나 친구,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현<sup>15)</sup>의 연구와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sup>18)</sup>의 연구에서 주위에 장애인이 없을 뿐 아니라, 언론매체에서 다루는 장애인에 대한 기사와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없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고,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정<sup>4)</sup>의 연구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sup>6)</sup>의 연구에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009년 기준 243만 명으로, 전인구 수 대비 5% 정도이다<sup>1)</sup>. 즉 우리 주변인구 10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육체적·정신적 장애 정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있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나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전체 방향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분석한 정<sup>4)</sup>, 현<sup>15)</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이 보완하는 정책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sup>16)</sup>은 정부차원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장애정도에 의한 정부의 경제적인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장애를 약점이나 사회 소외계층으로 느끼지 않도록 전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들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특히나 인지발달의 정점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의 관심과 인식전환을 위해 대학교육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서 2.75점이었고, 하부영역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접촉 시 긴장이 2.90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고, 왜곡된 동일시가 2.65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응급구조과 학생들은 장애인에 대해 중간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한 박<sup>17)</sup>의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전체 평균이 3.42점이었던 결과보다는 낮은 점수이고, 하부영역으로 접촉 시 긴장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고, 왜곡된 동일시와 추론된 정서적 장애에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는 결과에서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지속적인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으로 장애인들이 심리적으로 왜곡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추론적 정서장애 보다는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접촉할 때, 불안이나 긴장 또는 창피한 감정을 느끼고 접촉을 피하고 싶다고 느끼는 접촉 시 긴장감이 더 많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sup>18)</sup>, 박<sup>16)</sup>은 장애인에 대한 접촉

과 교육, 기타 자원봉사경험과 대중매체를 접할 기회가 많았던 대학생이 그렇지 않는 학생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미래 응급구조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또한 교과과정이나 교과이외의 시간에 장애인 단체나 기타 장애인 관련 기관과 연결고리를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하부영역의 손상을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sup>19)</sup>의 연구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sup>16)</sup>, 최<sup>18)</sup>의 연구에서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나<sup>20)</sup>, 부정적으로<sup>21)</sup>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손상을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은 장애인이 신체 어느 기관에 장애를 입으면 그 기관의 기능만이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일부 사람들은 손상된 부분의 기능만이 아니라 마치 개인 능력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태도이다. 졸업 후 병원전이나 병원환경에서 돌봄의 기회를 제공할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교과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기초과목, 전공과목으로 크게 분류되는데 1학년의 경우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에 입문하기 위한 전공기초과목을 주로 학습하고, 2·3학년의 경우에는 전공과목을 주로 학습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질병과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상승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지만, 전체적인 태도와 하부영역의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평균점수가 높기는 하지만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정<sup>4)</sup>, 최<sup>18)</sup>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고, 박<sup>19)</sup>, 박<sup>16)</sup>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듯 조사대상과 조사시점에 따라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차후 반복연구를 통하여 재확인함과 동시에 남녀의 특성차이를 고려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령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20세 이하'보다는 '21세 이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고, 하부영역에서는 '21세 이상'에서 무조건적인 거부와 손상을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20세 이하보다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정<sup>4)</sup>의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와는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50대 이상보다는 30대 이하에서, 즉 나이가 적은 교사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많고 긍정적이었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무조건적인 거부는 장애인에 대한 지식이나 철학 없이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분리교육을 시키거나 지역사회에서 분리를 바라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반대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20세 이하에서 보다는 21세 이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이유는 응급구조과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영역에 대한 지식이 많아짐으로 인한 결과이며,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정<sup>4)</sup>의 연구에서 50대 이상보다는 30대 이하인 경우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이유는 과거에는 장애인들의 교육을 특수학교에서 주로 전담하거나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교육학을 전공하지 않는 교사들이 담당함으로써 장애학생들에 대한 이해도 없이 교육을 담당한 결과이었고, 현재는 통합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이 배치된 결과라 생각된다.

종교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전체적인 태도와 하부영역의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최<sup>18)</sup>, 현<sup>15)</sup>, 박<sup>16)</sup>의 연구에서 종교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고, 박<sup>16)</sup>의 연구에서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다. 현<sup>15)</sup>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각 종교 단체는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종교기관 내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장애인들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비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의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해 본 결과 연령 이외의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박<sup>16)</sup>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났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접촉이나 정보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에 의한 영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장애인 관련 특성으로 주위 장애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친구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고, 하부영역에서도 가족이나 친구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서 추론된 정서장애와 친교의 거부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sup>22)</sup>, 박<sup>16)</sup>의 연구에서 가족이나 이웃, 친구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주위 장애 유무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하부영역에서 오히려 가족이나 친구 중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는 박<sup>17)</sup>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박<sup>16)</sup>은 접촉경험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연구에서 빈번한 교류와 친분을 유지하거나 관련기관이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장애인과 접촉한 경우

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대학에서의 통합교육을 통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정책에 의해 장애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단편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면담과 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학교와 학생들의 관심과 개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 문제 관심정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하부영역에서는 손상을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과 친교의 거부, 접촉 시 긴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이 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sup>4)</sup>, 김<sup>6)</sup>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최<sup>18)</sup>, 현<sup>15)</sup>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미국이나 서부유럽 국가들에 비해 아직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토베 케이코<sup>23)</sup>는 장애는 극복할 대상이 아니라 그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발달,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학교,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장애프로그램 관심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전체적인 태도와 하부영역의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방법에 따른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매스컴을 통한 홍보와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특히 하부영역의 친교의 거부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최<sup>18)</sup>는 간접접촉 방법인 대중매체가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장애인을 돕고 싶다는 생각과 비장애인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는 올바른 인식에 기여하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장애인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하였고, 동정심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많이 접하게 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올바르고 편견 없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장애인들이 장애를 필요이상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장애인 이미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불쌍하다’거나 ‘어리석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착하다’, ‘열심히 노력 한다’ 등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이 결과는 장애인과 마주했을 때의 첫 느낌을 묻는 질문에 ‘무섭다’, ‘불쌍하다’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느끼는 경우가 58.6%로 좋은 이미지를 느끼는 경우보다 많았지만,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는 좋은 이미지를 느끼는 경우에서 더 긍정적이었다는 정만복<sup>4)</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졸업 후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요구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대학생시절부터 장애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나 개인차원에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더불어 유관기관과 각종행사를 같이 함으로써 접촉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영향력이 큰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계몽운동과 올바른 정보제공,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강의 등 다양한 실천적 방법들이 제공된다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응급구조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에 소재한 3개 대학 응급구조과 전체학생 399명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348명이었고,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총 10일간이었다. 연구도구는 Siller<sup>13)</sup>가 개발한 DFS(Disability Factor Scale)를 이종남<sup>14)</sup>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거쳐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 PC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장애관련 특성으로 주위에 장애인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4.7%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1.5%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전체평균은 2.75점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6개의 하부영역에서는 접촉 시 긴장이 2.90점, 추론된 정서장애 2.79점, 무조건적인 거부 2.78점, 친교의 거부 2.74점, 손상 입지 않는 타 기능의 제한 2.66점, 왜곡된 동일시 2.65점 순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연령으로 ‘20세 이하’보다는 ‘21세 이상’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4) 대상자의 장애관련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친구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한 인식개선 방법으로 마스크를 통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나타난 제한점과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G광역시에 소재한 3개 전문대학의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차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응급구조과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개인차원에서나 학교차원에서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사회적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운동과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실천적 방법들이 제공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태도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연구만이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나 질적 연구를 통해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비장애인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5) 본 연구의 결과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접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접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 문헌

1. 통계청. 장애인구추계. <http://www.index.go.kr>, 2011.
2. 천인준. 천주교 장애인부 활동에 따른 일반신자의 장애인 인식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3. 채은선. 비장애아 어머니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9.
4. 정만복. SDA 삼육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5. 김정남, 서미경.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 9호, 2004.
6. 김인호. 대학생의 장애인 인식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7. 김미옥.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산업 2002;14(1):99-126.
8. 김은영.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비장애대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9. 문동팔. 장애인의 이미지형성과 사회통합에 대한 종사자 인식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10. Ellen G. White. Education, Publishing Association Washington, DC, 20039-0555, 1903.
11. 장애인복지법. 제 22조 1항, 2004년 3월 5일 개정.
12. 좌혜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3. Siller, J., Attitudes of the nondisabled toward the physically disabled. In J. Siller, A. Chipoman, L. Ferguson, & D.

- H. Vann(Eds.), *Studies in Reaction to Disability*. NY: New York University, 1967.
14. 이종남.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5. 한정숙. 대전지역 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6. 박은경.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경험 유무에 따른 비교.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7. 박향식. 생활재활 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8. 최정희. 자원봉사와 대중매체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9. 박용섭. 고등학교 학생의 장애 체험활동과 이해활동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0. 류원상.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연구. 2007.
  21. 손정화.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장애인 태도조사 연구: 직업재활학과 학부생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2. 이승호. 사회적 상황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관련 변인 간 관계 분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3. 토베 케이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1, 자음과 모음. 2003.

=Abstract =

## EMT-Paramedic Student's Attitude to the Disabled

Gil-Soon Choi\*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MT student's attitude to the disabled and provide the basic materials of educational program to make them have right awareness and attitude of the disabled.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48 of 339 emergency medical students at three departments of emergency medical in G metropolitan city who gave consent to take part in the research and the data were collected for 10 days from Mar. 2 to 11, 2011. It used DFS (Disability Factor Scale) developed by Siller (1967) and revised and complemented by Lee Jong Nam (1997) after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with technical statistics, t-test and ANOVA using SPSS/ PC 12.0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On the question that there are the disabled around the subjects, 74.7% of the respondents answered 'none', and on the question of having concerns on the disabled problems, 61.5%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y have no concerns on them'. In addition, on the question of effective methods for improving a negative awareness of the disabled, many of subjects responded the governmental support must be a priority.
2. The subjects' attitude to the disabled scored average 3.13 and they have positive attitude to the disabled. In six sub-areas of attitude to the disabled, tension in contact with the disabled scored 2.90, inferred emotional disorder 2.79, unconditional repulsion 2.78, refusal to friendly relation 2.74, limitation of other functions undamaged 2.66 and distorted identification 2.65.
3. Variable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ults of analysi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was age and those who are over '21'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 to the disabled than those who are below '20'.
4. In the results of analysis according to the subjects' disability related characteristics, those who have the disabled in their friends or family and have concerns on the disabled problems have a positive attitude to the disabled. Promotion and education through mass communication for changing the awareness of the disabled into a positive attitude will be most effective.

**Conclusion:** Consequently, positive attitude of EMT student's to the disabled can be fostered by continuous contact with the disabled and their participation in voluntary services in the dimension of individual or school will be important and also the various practical methods such as enlightenment movement and supply of right information through mass communication should be sought.

**Key Words :** EMT student's, Attitude, Disabled

---

\* Dep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 Kang College

Correspondence to: Gil-Soon Choi (E-mail: cgs7771@naver.com)